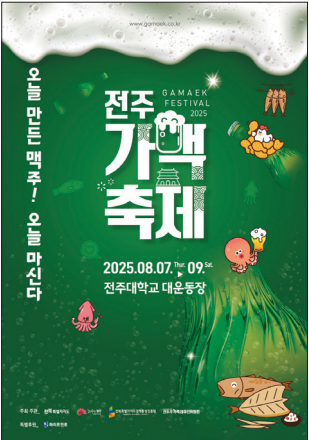


전주만의 여름축제 ‘전주가맥축제’

7~9일 전주대 대운동장에서 공연 프로그램·이벤트 풍성... 현장 안전 점검도 실시

전주만의 시원한 가계맥주와 업소별 대표 메뉴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전주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2025 전주가맥축제'가 펼쳐진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일)가 주관하는 '2025 전주가맥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전주가맥축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인 '가계맥주'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하이트진로, 지역 가맥업체들이 함께 만들어진 전주 대표 여름축제이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기존 행사장으로 사용했던 전주종합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 옮겨 열린다. 축제에서는 맛있는 가맥안주와 당일 생산된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 있으며, 행사장 주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축제 첫날인 7일에는 지역 문



2025 전주가맥축제 포스터

화예술인과 인기가수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드론쇼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8일은 DJ 클럽파티가 진행되고, 9일에는 불꽃놀이와 모차리가수가 대거

출연하는 '히드콘서트'가 펼쳐진다. 또 행사 중간중간에 펼쳐지는 가맥지기 플래시몹과 댄스타임, 관객참여 이벤트도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가맥축제에서는 방문객들과 지역 상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가맥축제에서 성인인증 후 받은 팔찌를 차고 효자동 일부 상권의 업소(가맥축제장 내 별도 공지)를 방문할 경우 별기이벤트와 가객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2025 전주가맥축제'를 하루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새롭게 변경된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점검에는 완산경찰서와 완산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방식

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무대 및 객석 등 임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전기·가스 설비의 과부하 및 누전·누출 위험 △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및 비상 대피 동선 확보 여부 △관람객 밀집에 따른 질서 유지 및 교통 대책 △폭염 대비 쉼터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류 판매 부스 주변의 전기 배선 노출부 덮개 보강 △관람객 주요 이동 동선과 비상 대피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폭염에 대비해 쉼터 설치 및 냉방기기 확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기도 했다. 이성일 전주가맥축제 추진위원장은 "전주가맥축제가 민간주도형 대표 축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과 세계로 뻗어가는 전주의 대표 문화축제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원주·전주 통합 반대축 사실 왜곡에 대해” 원주전주통합개발팀 픽추진위원회 진명수 사무총장(사진 가운데)과 소속 회원들이 6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반대 축의 사실 왜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전주한옥마을의 '제기차기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채규칠 명인과 간담회를 갖고 사려저가는 전통놀이의 보존과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남관우 전주시의장, '제기차기 할아버지' 채규칠 명인과 간담회

전주시의회는 남관우 의장이 전주한옥마을의 '제기차기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채규칠(77) 명인과 간담회를 갖고 사려저가는 전통놀이의 보존과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 의장과 채 명인은 제기차기를 비롯한 전통놀이의 문화적 가치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시민 자발 참여를 통한 전주한옥마을 홍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채 명인은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덕산 새샘치유카페에서 동서학동·노송동·완산동·팔복동 거주 취약계층 280여 명과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 22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게 삼계탕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채 명인은 "제기차기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채규칠(77) 명인과 간담회를 갖고 사려저가는 전통놀이의 보존과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 의장과 채 명인은 제기차기를 비롯한 전통놀이의 문화적 가치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시민 자발 참여를 통한 전주한옥마을 홍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채 명인은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덕산 새샘치유카페에서 동서학동·노송동·완산동·팔복동 거주 취약계층 280여 명과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 22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싱가포르 드론축구 대표팀, 한국 찾아 역량 ↑

9일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참가 앞두고 전지훈련·기술 교류 실시

오는 9일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에 참가하는 싱가포르 드론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를 찾아 최종 담금질에 나섰다. 전주시는 에드먼드 림(Edmund Lim) 싱가포르 드론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싱가포르 드론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전지훈련 및 기술 교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싱가포르 드론축구 대표팀이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전지훈련 및 기술 교류를 실시했다.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가입국이기도 한 싱가포르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에 참가해 드론축구 국가대표(Cash)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드론축구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싱가포르 대표팀은 한국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친선 경기를 펼치는 등 전방위적인 교류를 통해 역량을 키웠다. 특히 싱가포르 대표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드론축구 중추국인 한국의 전술 전략과 조종 기술, 장비 운영 체계 등 실제 경기력을 체험했으며, 실내 경기장 구조와 경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린 본선 무대에 대비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 성황리 폐장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등 가족 단위 시민들을 위해 10일 동안 운영한 도심 속 물놀이장에 총 90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날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대에서 10일간 무료로 운영된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에 하루 평균 900여 명, 최대 13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심 속 피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에는 10일의 짧은 운영기간 속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고르게 찾아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무더위 속 놀이

이장'에 하루 평균 900여 명, 최대 13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심 속 피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한바탕 전주 여름철 물놀이장에는 10일의 짧은 운영기간 속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고르게 찾아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무더위 속 놀이



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물놀이장에는 유수풀과 워터슬라이드, 영유아용 놀장 등 설치됐으며, 난방시설을 갖춘 탈의실과 무

더워워터도 함께 운영돼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시는 운영 기간 △24시간 여과기 가동 △매일 2시간 간격의 수질검사 △안전관리자·안전요원·간호요원 등 총 19명의 인력 상시 배치 △CCTV 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결과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새샘푸드뱅크·삼계탕 나눔

전주시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홍미연)가 새샘푸드뱅크(뱅크장 김용진)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는 완산구 고덕산 새샘치유카페에서 동서학동·노송동·완산동·팔복동 거주 취약계층 280여 명과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 22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식을 대접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